

# Information

No. 21-16

Date, 2006. 12

안녕하십니까 저희 삼광의료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단에서 다음의 항목이 신규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병원업무 및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Mycoplasma hominis & Ureaplasma urealyticum 배양 및 약제 감수성 검사 시행

Mycoplasma hominis와 Ureaplasma urealyticum 배양 및 약제 감수성 검사가  
신규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시행일자

2006년 12월 18일(월) 접수분부터

### 검사정보

보험코드	검사항목	검체	검사법	검사일 및 소요일	보고약제(9종)		의뢰가
너301 BY301006 + 너301 BY303006	Mycoplasma hominis(M,h) & Ureaplasma urealyticum(U,u) <b>배양 및 약제 감수성</b>	분비물 혹은 Urine 5.0ml	배양법	매일, 3일	Doxycycline	DOT	44,080원
					Josamycin	JOS	
					Ofloxacin	OFL	
					Erythromycin	ERY	
					Tetracycline	TET	
					Ciprofloxacin	CIP	
					Azithromycin	AZI	
					Clarithromycin	CLA	
					Pristinamycin	PRI	

## 검사의 의의

Mycoplasma hominis와 Ureaplasma urealyticum균은 남성이나 여성에서 비임균성 요도염 및 산후열, 방광염을 유발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적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60%가 U. urealyticum을 보균하고 있으며, 약 20%가 M. hominis를 질내에 보균하고 있습니다.

Mycoplasma hominis는 주로 비뇨생식기에서 발견되며 남성과 여성에서 비임균성 요도염을 일으키고 여성에서 산후열, 자궁경관염, 질염, 자궁내막염, 난소농양, 유산, 사산, 저체중아, 미숙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면역이 저하된 사람에서는 패혈증, 복막염, 관절염, 뇌막염, 상처감염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Ureaplasma urealyticum 균 또한 비뇨생식기에서 발견되는 정상균총의 하나이나, 비임균성 요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성에서 불임, 비특이적 전립선염에 관련이 있으며 여성에서 산욕패혈증, 양막염, 난관난소 농양, 방광결석, 저체중아 등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ycoplasma hominis & Ureaplasma urealyticum 배양 및 약제감수성 검사는 단시간안에 두 균을 동시에 검출 가능하므로 관련 질환의 원인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며 또한 9가지의 약제에 대한 균의 감수성 검사가 가능하여 성공적인 항생제 치료에 도움이 되고 치료 후 follow up에도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 검체 채취방법

### ■ 자궁내막 및 질 검체

Mycoplasma는 점액성 세포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궁경관 내막에 브러쉬를 삽입하여 15~30초간 회전시켜 분비물이 잘 흡수되도록 한 후 PBS가 들어있는 전용용기에 담아주십시오.

### ■ 요도검체

요도 내 3~4cm 깊이에서 브러쉬를 이용해 점액을 긁어 채취한 후 PBS가 들어있는 전용용기에 담아주십시오.

### ■ 정액 및 소변 검체

소변과 정액은 건조된 무균 용기에 담아주십시오.  
소변의 경우, 아침 첫뇨가 균의 검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시간이 지체되면 균이 사멸할 수 있으므로 검체 채취 후 당일에 의뢰해 주십시오.

### 분비물 전용용기



## 검사법

Mycoplasma hominis와 Ureaplasma urealyticum이 배양되는데 최적 조건인 배지에 의심부위의 검체를 접종시킵니다.

배지에서 균이 자라게 되면 Ureaplasma의 urea와 Mycoplasma의 arginine 물질이 배지의 pH를 높여 배지안의 indicator 역할을 하는 페놀이나 특정물질에 의해 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일반 배양검사에 비해 더욱 신속하게 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